

## 약속의 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후손”을 통해 땅을 구속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창 3:15). 하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약속의 씨가 분명 아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인을 움직여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창 4). 죄인들을 피고 의인들을 죽여버리면, 사탄은 이 땅의 통치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셋이었습니다(창 4:25). 약속의 씨를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한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셋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 약속의 씨를 보내시겠노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창 12:7, 13:15, 15:18, 17:8). 또한 그를 통해 열국이 복 받을 것이었습니다(창 12:3; 22:18).

땅을 취할 것(창 24:7; 26:3; 28:4; 28:14; 35:12)이며 열방에 복이 될 것(창 26:4; 28:14)이라는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땅과 인류의 구속은 언약을 통해 이 씨에 전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씨와 언약 둘 다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땅과 인류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이삭으로부터 떼어내야 했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결혼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수도 있었지만,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뤄져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 씨와 언약을 위협에 빠뜨리는 참담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구하기 위해, 초자연적 간섭을 하셔서 무죄한 족속을 치기까지 하셨습니다(창 12:10-20; 20:1-9; 26:7-11).

에서는 장자권을 파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거기엔 약속의 씨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창 25). 그 순간으로부터, 비록 에서가 장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언약적 권리를 존중하셔야 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혼인했을 때, 언약은 그녀의 아들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또한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레아의 장자 르우벤은 성적 타락으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차남과 삼남 시몬과 레위는 폭력을 휘둘러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넷째인 유다에게 전해졌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유다는 그것을 확증했습니다(창 44:33).

디나가 하몰과 쥘여 언약의 씨를 위협을 받았고, 이는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큰 죄악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씨의 계보를 지킨 방편이었습니다(창 34).

유다는 가나안 여인 밧수아와 결혼하여 언약의 씨를 거의 망칠 뻔했습니다. 다말 덕분에, 비록 “창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구속 계획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창 38:26). 그 씨는 이제 쌍둥이 형제 세라를 뚫고(히브리어: 파라쯔) 장자권을 차지한 베레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모세의 때에 이르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져 사탄이 누구를 죽여야 할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이는 전략을 썼습니다(출 1).

이와 똑같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사탄의 책략은 에스더 서의 하만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또한 무죄한 아기들을 죽이려 한 헤롯에게서도 볼 수 있고(마 2:16-17), 나치를 통한 히틀러의 대학살, 이 시대 이슬람 지하드의 운동에서도 보입니다. 하만과 아흐마디네자드 사이엔 영적 연관성이 있는데, 둘 다 이란(페르시아) 정부의 수장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혼인에 대한 순결법은 오실 메시아의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례는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한 언약적 숙명을 상징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통한 모압 여인들의 음행으로 그 씨는 거의 멸절될 뻔 하였습니다(민 25:1). 그러나 의로운 모압 여인 롯 덕에 후에 구원된 것입니다. 롯은 보아스를 통해 씨를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오벳이 나왔고, 이새와 다윗이 나왔습니다(룻 4:21-22).

다윗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삼하 7:14), 그러나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약속을 거의 망쳤습니다. 그 간음으로 인한 아들은 죽었지요(삼하 12). 허나 다윗의 회개로 언약은 회복되었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나온 둘째 아들 솔로몬이 약속의 씨를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아달라는 왕궁의 거의 모든 씨를 죽여버렸지만, 성결한 여호세바는 마지막 남은 아들 요아스를 그녀의 손에서 구해냅니다(왕하 11:1-2).

에스라는 부도덕과 잡혼으로부터 약속의 씨를 지켜내기 위해 싸웁니다(스 9:2; 9:8; 느 9:2).

성경의 역사 전체에, 살인의 공격이 한편에 성적 타락의 공격이 다른 한편에 나타납니다. 씨가 멸절됐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좌절됐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심에는 유대 민족이 보존돼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창조 세계가 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렘 31:31-36; 33:20-22).

신약의 첫 장은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해 예슈아까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교 여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그 중에 메시아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모든 유대 여인들의 소망은 2000년 전 다윗 가문의 어린 처녀 미리암(마리아)이 베들레헴 외곽 구유에서 출산하였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성탄절의 상업화는 저주가 되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큰 유대 절기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에 저희 민족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씨를 지켜야 한다는 언약적 사명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